국내 주식 마감 시황

2026년 11월 10일

극단적 공포 탈출, 수급 요인에 5,200p 탈환

[Market Analyst] 강진혁 선임연구원 ☎ (02) 3772-2329 ✉ kjinhyeok@shinhan.com

Risk-on 심리 속 양 시장 매수 사이드카

금일 KOSPI, KOSDAQ은 각각 4.4%, 4.5% 상승했습니다. 대이란 협상 진전 시 군사행동 가능성 낮다는 Trump 발언 등에 WTI는 87$ 아래로 추가 하락했고 VIX(19.9p, -22.3%) 진정, Fear&Greed(32p) 극단적 공포 이탈 등 위험선호 심리 대두됐습니다. 빅테크(Meta +5.1%)·반도체(SOX +6.9%) 동반 강세였고 Jensen Huang 여파는 Nvidia(-4.3%)에 제한된 가운데 오히려 AMD(+13.3%)와 Broadcom(+8.8%)에는 반사수혜 기대 유입됐습니다. 한국도 선행 PBR 0.94x 수준에서 저가 매수세와 숏커버가 더해졌습니다. 반도체 대형주(삼성전자 +4.7%, 하이닉스 +6.7%) 견인에 KOSPI는 5,200p를 돌파했고 KOSDAQ도 소부장(주성 +7.5%, 이오 +14.5%)이 강세 이어가며 양 시장 매수 사이드카 발동됐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 非반도체 AI 밸류체인 동반 강세

非반도체 부진에 뒷심이 부족했던 전일과 달리 외국인 현선물 동반 유입되며 대형주 전반 강했습니다. 헬스케어(삼성바이오 -2.8%, 셀트리온 -3.3%) 및 방어주(KT&G -3.7%)는 매물 출회됐지만 삼성전기(+4.6%)와 전력기기(효성重 +12.7%) 등 AI 밸류체인 강했습니다. 방산(한화에어로 +3.1%)·조선(HD현대重 +3.9%) 등 산업재를 비롯해 양 시장 2차전지(삼성SDI +9.9%, 에코프로 +10.2%)도 함께 반등하며 지수 지지했습니다.

#특징업종: 1)우주: NASA, SpaceX(+5.8%) 등 달 화물 수송사업 8개 기업 발표하며 민간 달 탐사 추진 가속화(스피어 +7.0%) 2)전후 재건: 금일 UAE서 미-러-우 3자 종전 협상 개최 예정(전진건설로봇 +16.6%) 3)탈모 치료: Baricitinib 장기 임상시험의 효과 지속성 확인(삼익제약 上)

중간선거 영향권 지나 CPI·CoreWeave 실적 대기

중간선거 발 DC 노이즈 충격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BAAJA 절차 표결 통과도 안도 요인이었습니다. 사업자 비용 부담 의무 외에 기승인 사업의 안정성 확보,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원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투심 회복에는 유가 안정도 크게 기여한 가운데 오늘(22:30) 美 CPI는 작년 셧다운 영향으로 YoY 데이터는 생략됩니다. 내일 아침 실적 앞둔 CoreWeave는 지난 분기 호실적과 1,000억 $ 이상의 수주 잔고를 발표하며 AI 투심을 개선시켰는데(당일 +19.3%), 최근 자본비용 등 눈높이도 높아진 만큼 시장 반응을 주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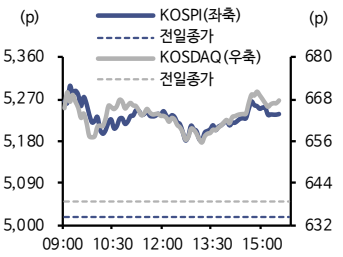
#주요일정: 1)美 10월 CPI(22:30) 2)美 CoreWeave 등 실적 3)韓 10월 실업률(11일 08:00) 4)韓 이마트·코스맥스 등 실적(11일)

주식시장 지표

구분	KOSPI	KOSDAQ
종가	5,239.13 (4.39%)	667.61 (4.48%)
상승 종목	716(↑7)	1399(↑6)
하락 종목	175(↓0)	288(↓0)
주체별(억원)	**KOSPI**	**KOSDAQ**
개인	-13,415	-561
외국인	3,697	-1,472
기관	4,889	2,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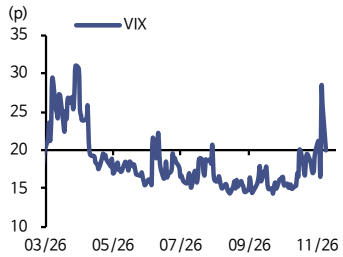
자료: 신한투자증권

KOSPI, KOSDAQ 장중 흐름



자료: Infomax, 신한투자증권

VIX 급반등 후 재차 진정



자료: Bloomberg, 신한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강진혁).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상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료 제공일 현재 당사는 지난 1년간 상기 회사의 최초 증권시장 상장시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자료제공일 현재 조사분석 담당자는 상기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주식관련사채에 대하여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으며, 추천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도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당자료는 상기 회사 및 상기회사의 유가증권에 대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나 이는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의 선택이나 투자의 최종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허락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될 수 없습니다.